Interview 파라그 카나 알파지오 최고경영자

“할리우드·도쿄 시대 저물어, 韓 패스트 IP로 문화 지형 재편”

윤진우 기자

“지난 수십 년간 글로벌 문화의 흐름은 할리우드와 도쿄에서 출발해 전 세계로, 일방향으로 수출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웹툰과 K-드라마로 대표되는 한국의 ‘패스트 지식재산권(IP)’은 이 거대한 공급망을 뒤집고 있다.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한국 웹툰 IP를 바탕으로 영상 제작에 나서는 현상은 문화 주권이 ‘스튜디오 소유’에서 ‘원작 이야기 소유’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 일어나는 변화는 단순한 시장점유율 변화가 아니라 문명사적 중심축의 재이동이다.”

글로벌 데이터 분석 기업 알파지오를 이끌고 있는 파라그 카나(Parag Khanna) 알파지오 최고경영자(CEO)는 10월 5일 ‘이코노미조선’과 인터뷰에서 “아시아가 더 이상 단순한 세계의 공장에 머물지 않고 문명사적 중심지로 복귀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2021년 출간한 베스트셀러 ‘아시아가 바꿀 미래’에서 아시아의 문화 경쟁력이 커지는 상황을 전망한 바 있다. 카나 CEO는 “기존 할리우드 프랜차이즈가 수년의 시간과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는 사이 한국과 중국은 1년 만에 검증된 IP를 기획·생산·확장하는 민첩한 제조 모델을 구축했다”며 “특히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플랫폼 경쟁에서 세계 콘텐츠 공급망의 네트워크 집결지로 도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과 중국의 콘텐츠 IP가 급부상하는 현상을 앞서 진단했다.

“글로벌 IP 시장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와 일본이 주도해 왔지만 2000년대 들어 아시아로 중심축이 이동했다. 한국 웹툰이 좋은 예다.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한 웹툰 수출 가운데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49.5%, 미국은 21.0%(2024년 기준·2025 웹툰 산업 실태 조사)에 달한다. 미국과 일본이 한국 콘텐츠 IP 시장의 주요 수출처가 되고 있다는 의미다. 네이버웹툰의 글로벌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플랫폼 성장이 아니다. IP 계약 하나하나가 쌓이면서 문명사적 균형이 재조정되고 있다.”



파라그 카나

파라그 카나 알파지오 최고경영자(CEO)
미국 조지타운대 국제관계학·석사,
영국 런던정경대 정치학 박사,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자문위원, 전 싱가포르국립대 선임연구원,
‘아시아가 미래다’ ‘커넥토그래피’ 등 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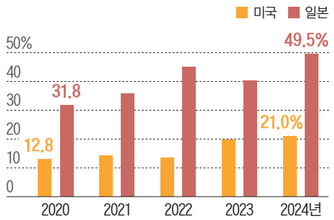
미국과 일본의 장기 개발 방식과 비교할 때 한국의 빠른 속도엔 어떤 의미가 있나.

“초연결 세계에서는 규모보다 민첩성이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마블이나 디즈니가 하나의 프랜차이즈를 승인하고 제작하는 데 수년과 수억달러를 투입할 때 한국의 웹툰-드라마-영화 체계는 이 과정을 1년 안팎으로 단축했다. 시장성을 검증한 원작을 활용하는 원소스 멀티유즈 방식은 스토리텔링에 적용된 ‘린(lean) 제조업’ 모델과 같다. 지난 수십 년간 글로벌 문화의 흐름은 할리우드와 도쿄에서 출발해 전 세계로 수출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웹툰과 K-드라마로 대표되는 한국의 패스트 IP는 이 거대한 공급망을 뒤집고 있다. 중국 선전이 미국 디트로이트보다 빠른 하드웨어 상용화 역량을 보여준 것처럼, 서울은 할리우드보다 빠르게 IP를 순환시키며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속도 외에 또 다른 경쟁력은.

“유연한 연결성이다. 네이버웹툰의 IP인 ‘신의 탑’과 ‘갓 오브 하이스쿨’ 등이 일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영상화되고, 미국 크런치롤 같은 글로벌 애니메이션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구조를 봐라. 오랫동안 애니메이션 수출국이었던 일본이 한국 원작 IP의 영상 제작을 맡는 새로운 분업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한국 웹툰 IP를 바탕으로 영상 제작에 나서는 현상은 문화 주권이 ‘스튜디오 소유’에서 ‘원작 이야기 소유’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韓 웹툰 주요 소비처로 떠오른 美·日



※ 웹툰 수출액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미·중 갈등과 플랫폼 규제가 IP 유통에 미칠 영향은.

“콘텐츠 플랫폼은 21세기의 새로운 초크포인트(Choke Point·길목)다. 해협이나 파이프라인 대신 알고리즘과 앱스토어 승인권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한국은 미·중 패권 경쟁에서 어느 한쪽에 완전히 쏠리지 않고 독보적인 지위를 잘 활용하고 있다. 과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중국 시장이 차단되는 시련도 겪었지만, 미국과 동남아, 중동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하면서 플랫폼과 데이터 갈등 구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영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한국은 이런 지위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생성형 AI 등장으로 콘텐츠가 범람하는 시대가 됐다.

“생성형 AI로 제작 비용이 0에 수렴할수록 희소가치는 복제하기 어려운 진정성 있는 원천 IP로 이동할 것이다. 팬덤과 감정적 유대 관계를 맺은 인류 공통의 스토리 자산은 인공지능(AI)이 무작위로 생성한 콘텐츠와 차원이 다르다. 중요한 것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갖추는 것이다. 한국은 네이버·카카오·삼성전자라는 강력한 디지털 인프라와 독보적인 스토리텔링 창작 엔진을 동시에 보유한, 드문 국가다.”

AI 저작권 법제가 파편화하면 글로벌 IP 거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글로벌 규범이 하나로 수렴하기보다 지역별로 파편화하는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다. 이에 따라 IP 거래 비용은 증가하고 규제 장벽은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런 현상이 심화할수록 다국적 법률 대응 능력을 갖춘 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 같은 대형 원작·유통 기업이 더 큰 이점을 얻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 기업이 IP 공급을 넘어 가치 사슬 전체를 지배하려면.

“과거처럼 IP 라이선스만 넘기고 유통과 각색 등을 서구 기업에 맡기던 시대는 끝났다. 네이버웹툰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작·유통 역량을 강화해 온 것처럼 기획부터 투자·각색·유통 전반을 직접 통제하는 네트워크 집결자로 진화해야 한다. 천연자원이 풍부한데도 경제 발전 수준은 낮은 나라가 겪는 ‘자원의 저주’가 콘텐츠 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전체 가치 사슬을 지배하기 위한 생태계를 구성해야 한다.”

+Plus Point

Interview 아인 코카스 버지니아대 윌슨센터 선임연구원

“中 플랫폼 규제 반사이익 얻은 韓…IP 유통 플랫폼 키워야”



아인 코카스 버지니아대 윌슨센터 선임연구원
미국 미시간대 동아시아학, UCLA 디지털미디어학 박사, 전 라이스대 베이커연구소 비상근 연구원

“중국은 틱톡 등 자국 유통 플랫폼의 강점과 저비용·초고속 생산 방식을 결합해 할리우드가 기득권을 쥔 전통 미디어 시장을 우회하고 있다. 한국도 IP 주권을 지키려면 독자적인 IP 개발을 넘어 자체 유통 플랫폼을 함께 육성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미디어·데이터 안보를 연구해 온 아인 코카스(Aynne Kokas) 미국 버지니아대 윌슨센터 선임연구원은 10월 4일 ‘이코노미조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중국이 할리우드 영화 공동 제작에서 숏폼 드라마 등 디지털 IP 수출로 전략을 바꿨다.

“중국은 할리우드 기득권이 막강한 영화·TV 등 전통 미디어 시장에서 정면 승부하는 방식을 우회하고 있다. 대신 틱톡, 샤오홍슈 등 자국 앱의 강력한 유통 역량과 낮은 초기 투자 비용을 활용하고 있다. 자국 플랫폼의 배급력을 바탕으로 저비용 디지털 IP를 빠르게 수출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이다.”

지정학적 긴장과 플랫폼 안보 규제가 한국과 중국 IP 유통 전략에 어떤 영향을 주나.

“중국 디지털 콘텐츠는 플랫폼의 광범위한 확산에 따른 데이터 안보와 개인정보 보호 우려로 해외에서 강한 규제 장벽에 직면해 있다. 반면 한국 IP는 상대적으로 이런 안보 리스크가 작다. 한국 콘텐츠가 쌓아온 높은 호감도와 신뢰도가 일종의 후광 효과로 작용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고 있다.”

한국이 IP 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은.

“IP 주권을 지키려면 독자적인 콘텐츠 개발과 함께 자체 유통 플랫폼을 육성해야 한다. 플랫폼은 어떤 IP를 유통할지 선택하고 수익 배분과 라이선스 조건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결국 글로벌 플랫폼에만 의존하지 않는 자체 배급망을 확보해야 창작자의 권리와 장기적인 수익을 지킬 수 있다.”

22-23_커버-파트3-파라그 카나_m.indd 모든 페이지
2026. 10. 8. 오후 2:09